

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 진행

1. 개요

- 북한은 제2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5.3부터 5.6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음.(5.3~5.7 중방)
 - 참석자 : 최태복 당 비서, 노두철 내각 부총리, 변영립 과학원장, 김영진 교육상 등

2. 보도 요지

- 과학기술축전은 과학연구·교육기관과 공장·기업소·협동농장의 과학기술 성과들을 심사,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.
- 작년 12월부터 진행돼 온 지방축전에는 4,100개 단위에서 48,400여명의 과학자, 기술자,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, 그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430여건이 이번 중앙축전에 참가하였음.
- 이번 축전에는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고, 전력·석탄·금속·철도 운수 부문의 발전과 경공업 부문의 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성과와 함께
 - 정보기술, 나노기술, 생물공학 등 첨단과학과 기초과학 부문 도약과 인민경제 제반 부문에서 생산공정·설비의 현대적 개선 성과도 제시되었음.
- 개막식에 이어 최신 과학기술 발전방향과 연구동향에 대한 토론회와 17개 분과별 발표가 전개되었고,

- 종합심사 결과 농업과학원 벼연구소 연구사 장후정 등 42명을 1등으로 선정하고, 축전컵과 메달, 증서 등을 수여하였음.

3. 분석

○ 중앙과학기술축전은

- 한 해 동안 이룩한 과학·기술성과들을 총결산하고 그것을 인민경제에 도입, 일반화한다는 목표아래 모든 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행사로

- 매년 연말 또는 연초부터 공장·기업소·협동농장들에 이어서 도·시·군 단위로 실시하는 [지방과학기술축전]에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우수 과학기술 성과들을 대상으로 4·5월을 전후하여 평양에서 개최되는 [축전]의 마무리 행사임.

※ [과학기술축전]은 김정일의 주창으로 '86년부터 매년 과학기술개발 성과를 점검하고 과학자·기술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되는 연례적 행사

○ 이번 제20차 [중앙과학기술축전]의 특징은

- 전력 등 경제 선행부문 및 농업·경공업 부문에서의 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성과는 물론,
- IT 등 첨단과학, 기초과학의 발전과 생산공정·설비의 개건 현대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점임.

○ 따라서 이번 행사는

- 북핵문제 등으로 대외 기술협력과 자본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하에서

- 자체적인 기술혁신 성과의 확산에 주력함으로써 경제 각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주안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.

<최근 [전국(중앙·지방)과학기술축전] 개최 추이>

연도별	지방과학기술축전		중앙과학기술축전 (출품건수)
	참가 규모	출품건수	
2002년	76,000여명	40,700여건	500건
2003년	56,000여명	40,000여건	200건
2004년	44,000여명	29,700여건	400건
2005년	4,100개 단위 48,400여명	-	430건